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종교개혁 제 478주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때의 주장과 열심을 되새기며 반성과 부단한 갱신을

오늘은 종교개혁 제 478돌을 맞는 날이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뷔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조 격문은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는 도화선이 되었고, 중세의 카톨릭적인 보편 질서를 깨고 교회의 전통보다 말씀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종교개혁은 개신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종교개혁일은 개신교회의 생일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카톨릭 교회의 전통보다 성경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선한 행실이나 공로보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와, 교황이나 신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민제사장론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그들의 주장이었다.

종교개혁은 그것이 단지 교회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5세기의 지리상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관의 변

화와 인문주의의 발달로 인한 인간관의 변화에 대한 교회의 내적 반응이며 대응이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사회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교회 갱신이라는 과제는 교회만의 갱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변혁도 수반해야 한다. 종교개혁 478주년을 맞는 오늘, 진정한 종교개혁이란 사회의 반영물로 교회 속에 파고든 그릇된 모습을 개혁시킴과 동시에 그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마저도 변화시

키는 힘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교회가 개혁되고 그 힘으로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신앙과 신학의 토대 위에 "개혁교회는 개혁해가는 교회이다(Reformed Church is Reforming Church)"라는 말로 자신을 갱신한 초기 개신교회의 주장과 열심을 되새기며 오늘날에도 부단히 갱신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다음 주일 건축헌금 드린다

다음 주일(11월 5일) I, II, III부 예배 시에 건축헌금을 드린다. 평당 1200만원으로 알려진 대지 구입비 100억원을 목표로 한 이번 건축헌금에 한 가정 혹은 한 가족당 한 평 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당을 지으려 하는가에 대해 깊이 기도하면서 작정해야 할 것이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일시불로 할 경우 봉투를 사용하며, 작정헌금도 가능하다. 분할방식 또한 권장하며 전에 작정한 것을 완납하지 못한 가정은 새로 작정하는 것을 전의 것에 더하여 바치면 된다. 부동산인 경우 문서를 바치면 모든 헌금자는 봉투에 가족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기재된 가족의 이름은 새 예배당의 뜰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비전 2000운동 22일째, 지속적인 기도, 효과적인 전도



▲70인 전도단 훈련 - 강의와 실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다녀가도 -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옥탑층에서 목회자세미나 참석자들을 위해 김밥을 싸느라 분주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 비전 2000운동 22일째를 맞는 오늘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지정된 대상지역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교회학교	전도대상 지역	찬양대	전교인
유년부, 초등부, 사랑부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임마누엘	나누어가진
중등부, 소망부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가브리엘	전도지로 이웃에게
탁아부, 유치부, 새가족부	영동시장		
고등부, 장년부	제일생명 ~ 강남역	할렐루야	
대학부, 청년부	노보텔, 삼정호텔 부근		

●... 태신자 카드와 연속기도회 참가신청서는 비전 2000운동 기간동안 계속하여 접수하고 있다.

●...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70인 전도단 훈련이 이번 주에도 계속된다.

●... 비전2000금요기도회는 남은 한 달동안 주력교구와 부서를 정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기로 하였다.

▼ 금요기도회 주력교구 및 부서

날자	교구	남선교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11월 3일	1, 2, 3교구	요 한 선교회	에스더 전도회	탁아부, 유치부
11월 10일	4, 5, 6교구	베드로 선교회	한 나 전도회	유년부, 초등부
11월 17일	7, 8, 9교구	바 울 선교회	마리아 전도회	중등부, 고등부
11월 24일	10, 11, 12교구	모 세 선교회	루디아 전도회	대학부 청년부

창세기 강해



형제의 만남

(32장 1 - 21절)

이종운 목사

에서를 만나기 전날의 야곱의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갈르앗에는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계약한 경계인 들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형 에서의 영역이었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분노에 떨던 형 에서(창 27:45)의 위협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여전히 악심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전진은 이러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지키심

야곱이 라반을 만날 때(창31장)와 같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방법(창32장)에는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도망을 쳤고 군인과 함께 쫓아온 라반에게 오히려 야곱은 대담하게 라반의 공의롭지 못함을 책망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에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에게처럼 담대하지 못했고 비굴한 태도를 보입니다. 라반 앞에서는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지만 에서 앞에서는 자기가 행한 악한 행실이 생각났기 때문에 비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에서'입니다. 이흐벤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의 마음에는 오로지 라반의 영향권에서의 탈출하려는 마음 뿐이었으나 고향이 가까와 오면서 점점 에서가 부각되어 압박감까지 왔을 때는 그 위협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만일 한 명 뿐이었다면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지만 천사의 군대가 동원되자 야곱은 오히려 그의 양심에 더욱 가책을 받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벨엘의 사다리 체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야곱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나약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전, 범한 죄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두려움에 떠

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섬기게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히1:14).

2. 실패할 때 기도

야곱이 귀향한다는 소식이 에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에서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야곱을 만나기 위해 노중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의 노를 품지는 않았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사 40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만일 에서가 공격해 오면 한 무리라도 도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1, 2절에서 야곱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two group)이라 하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의 힘은 곧 하나님의 힘이라고 인식했었으나 그 놀라운 계시를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기의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 자신이 나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가 기도할 기회다"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자원이 바닥났을 때 비로소 주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창세기 32장 9-12절은 야곱의 첫번째 기도입니다. 야곱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이 일곱장이나 되지만 야곱이 기도한 대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구사할 줄 알고 심지어 단을 쌓고 의미있는 칭호까지도 받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에야 비로소 기도한 야곱의 기도 내용은 다섯가지입니다.

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다(9절). ②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합니다(10절). ③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10절 하). ④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11절). ⑤ 하나님께서 전에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간청했습니다(12절). 그의 기도는 참으로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3. 자기까지 포기해야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행할 일에 대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는 자기가 준비한 제약을 다시 추진해 갔습니다(13-20절). 심지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도 여전히 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재물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합니다. 심지어 종들도, 레아와 자식들도, 요셉과 라헬까지도 내어 보냅니다. 그러나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압박감 나무터에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쳐 복종시키십니다.

우리가 가끔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될 때까지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종교개혁 전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는 매우 종교적인 시대였다.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당과 수많은 기도처소가 도처에 세워졌고 감동적인 종교의식이 날마다 성행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 사회는 전반적으로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도덕성을 상실했고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 1538년 로마의 추기경들은 당시 교황에게 '개혁의 제안'이라는 상소를 올려야 할만큼 교회는 부패했었다. 무엇보다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성직자들의 횡포가 교회를 어지럽힌 것은 교리적 탈선 이상으로 심각했다.

작금 우리 사회는 종교적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도처에 높이 세워진 십자탑과 신학교의 수는 가히 세계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교회와 사회는 어떠한가? 제2차 종교개혁의 횃불을 누가 울릴 것인가?

■ 재산의 십일조로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채우실지 설레입니다”

한 화 선 (집사, 탁아부 교사, 임마누엘 찬양대원)

부 모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저희 가족은 서울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건축이 이미 완성된 교회에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까지 헌신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교회에 빚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짓는 일에 많은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리 간절하지 않았고, 마음 한 구석으로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우리 가정은 남편(김춘민 집사)의 은사를 따라 사랑부에 봉사하기 위하여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당이 아닌 임대 건물을 사용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의 협소함 때문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명들을 유보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당 지을 터전을 극적으로 눈앞에 보이시고 건축을 위한 헌신이 요구됨으로써 주변 분들과 함께 이 일을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

던 중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그것의 십일조로 건축헌금의 액수를 정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베풀어 주시길,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걱정하도록 하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가 우리 가족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더욱 든든히 다져가는 기회가 되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마음이 너무도 설레일 뿐입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 한나(6학년), 정국(4학년)도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마음으로 교회당 짓는 일을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기로 하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저의 일을 하나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구원의 감격과 일생을 주님 뜻대로 살고자하는 선한 소원과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더욱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스러운 예배당 건축에 작게나마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능력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1.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라
2.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확인하라
3. 성령으로 증명한지 확인하라
4. 그리스도를 전해줄 준비를 하라
5. 기도하라
6. 찾아가라
7.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8.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과를 기대하라

■ 종교개혁주일에 들은 설교말씀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과 교회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공헌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D, 리빙스턴의 말씀이라면, 스가라 3장 2절은 요한 웨슬레의 말씀이고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의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칭의교리를 확립했다. 그는 여기서부터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흘러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다른 교리의 스승이요 왕자며 주요 통치자와 심판자가 된다고 한다. 칭의 교리가 없다면 모든 기독교 교리는 사라지게 되며 이 교리가 하나님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며 방어한다고 한다. 이 교리없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마에 있는 성 요한 교회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집 돌을 옮겨서 계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계단을 예수가 밟았던 돌이라 하여 거룩한 계단(Holy Stair)이라 한다. 로마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며 기도했다. 어떤 계단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여 예배자들은 거기에 키스를 하고 다른 계단에 오르기 전 오랜 동안 앉드려 기도한다.

루터는 다른 순례자들처럼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다. 그때 그의 마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크게 들렸다. 그러나 루터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그는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다. 기독교 미신에 붙잡혀 그는 공포속에서 흐느끼고 있는 자신을 본다.

루터는 “두려움으로”라고 말했다.
그때 바울은 “믿음으로”라고 말한다.
루터는 “행함으로”라고 말했다.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한다.
마침내 루터는 계단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고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빌라도의 계단에서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뷔텐베르크로 돌아갔다. 그 이후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위대한 신학을 세우게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1517년 10월 31일 뷔텐베르크성 교회당 문에 95개 조항의 표지를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이 붙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교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가능대라면 오늘의 교회는 이신득의(以信得義)의 교리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창수가 나면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주님, 이 생명을 주옵소서!

'95비전 2000운동 태신자 명단 (다음 호에 계속 게재합니다.)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노영숙	김준형	허정자	신소영 김영호	안순이	김귀애 김석주 김영국
김경아	김연수 김민경 임춘도		김진환 김두영 윤영자	김진민 김연희 김성준	
하영수	전홍천 전홍희 황인창		윤영실	김명환	
김명심	오문주 이숙화 오현희	김광옥	신민수 전선영 신 선	권영자	원선인 강점이
	오선희 문병학 이혜련	이봉선	오태환 이관용 김인자	왕경래	한만진 박승노 노명숙
	문세진 문병진	무 명	남미희	이인선	임점택 이인향 임동석
오정수	이인화 박형숙 박관순	원 호	이의선 박호중 박기호	박명석	최영자 이종열 이정현
	백숙자		이훈택 홍순덕 유인경	서희숙	차익수 손미나 차준성
정현숙	김지중 박현주 이종환		신희재 김영숙 홍성원	무 명	탁봉남 탁봉재 탁봉심
	송복선 사양순	윤봉준	구교근 이강우 고아라	무 명	권인하 김소숙
강윤숙	이혜성 최태진	이맹영	박문열 민영식 최행주	무 명	김금순 신현기
김향권	유미자 윤성우		김원태 나중서 이상필	무 명	장건행 송우미
김금준	양삼승 이경서 심성섭		이길봉 이길용 이정배	무 명	장효덕 장정재 장효운
원복순	권옥순 김철호 양미화		최윤덕 조광욱 소수관		장효정
김영준	홍정숙 박은영 김창영		배병길 이성수 고병훈	무 명	박영희 이윤호 이선정

금주의 '95비전 2000운동

- ▶ 전교인 (부서별) 노방전도 / 주일 I, II, III부 예배후
- ▶ 전교인 합심기도회 / 찬양예배 후
- ▶ 비전 2000 새벽기도회 / 매일 오전 5시 30분
- ▶ 다니엘 기도 /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 ▶ 70인전도단 훈련 / 제 3차교육 - 31일(화) 오전 10시
제 4차 교육 - 1일(수) 오후 12시 45분
- ▶ 비전 200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9시
- ▶ 찬양집회 - 4일(토) 오후 5시 - 대학부실에서(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 ▶ 모든 예배와 집회 후 / 노방전도와 축호전도, 잃은 양 찾아나서기
- ▶ 연속기도회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10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10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10월의 새가족 *

- | | | | | | | | |
|-----|-----|-----|-----|-----|-----|-----|-----|
| 정주현 | 안정애 | 전귀복 | 조성재 | 최순옥 | 양창숙 | 김영보 | 심명숙 |
| 김찬영 | 김정희 | 신호선 | 조애자 | 최정희 | 이만례 | 권정아 | 정희영 |
| 이숙정 | 백은주 | 우향순 | 최승득 | 김미정 | 박성현 | 김은숙 | 이상범 |
| 이경완 | 이용준 | 박종울 | 이승현 | 하성호 | 서명옥 | 강중옥 | 강혜숙 |
-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못다한 심김, 기도함으로 갚으려”

지금은 비전 2000운동과 목회자신학세미나로 무척 분주할 서울교회를 그리면서 펜을 듭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달 전, 이곳 탄자니아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공기가 좋고 과일들이 풍성하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말을 모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성경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들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 기이하게 여기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친구와 함께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주민들이 어쩌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요. 목에 걸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교회로 나오곤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마술사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동안은 마술사가 무서워 하나님을 못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마술사의 아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85년 전에 백인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와 병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때 뿌려진 씨앗

덕택에 지금 수확이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슬렘들의 손길이 이곳까지 뻗어있어 돈을 투자하여 모슬렘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는 아프리카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곳을 모슬렘화하려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탄자니아 뿐 아니라 인근의 나라들을 수년 내에 모슬렘 국가로 만드는 일입니다. 기도와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전도한 교인들이 흠뻑물을 적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공되면 유치원을 개설할 예정이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교회를 못다 심김 것을 생각하며 새벽마다 무릎 꿇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유순화 전도사 드림

Sonya Kim (S. H. Yoo)
P. O. Box 15 Kola Ndoto
Shiayanga Tanzania
E. Africa

■ 제 8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9 10월 30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기독교 사회 윤리와 인성회복 (고범서 박사)
- 10 11월 5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이종윤 목사)
제 2교시 / 교회교육과 인성회복(오인탁 박사)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종교개혁 정신을 되살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센터가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3. 비전 2000운동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4.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